

《萬曆野獲編》 翻譯 및 註釋(2)

蔡守民* · 宋貞和** · 李承信***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하늘에 즉위를 고하다(告天即位)
3. 봉선전(奉先殿)
4. 京師의 帝王廟(京師帝王廟)
5. 제왕이 배향하다(帝王配享)
6. 효자록(孝慈錄)
7. 황제의 문집(御製文集)

1. 들어가는 말

《萬曆野獲編》은 明 萬曆 연간인 1627년경의 문학자 沈德符가 쓴 筆記로 明 初부터 만력 연간까지의 정치, 제도,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필기 형식이기 때문에 正史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을 객관적이고 치밀한 고증을 통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명대의 역사,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¹⁾ 현재 전하고 있는 《만력야획편》은 총 30권 補遺 4권으로 구성되며 그 중 명대의 제도, 법령, 인물, 사건 등에 관한

* 高麗大 세종캠퍼스 中國學部 강사(主著者)

** 高麗大 中國學研究所 연구교수(交信著者)

*** 韓國産業技術大 教養學部 외래교수(交信著者)

1) 《萬曆野獲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宋貞和 · 李承信 · 蔡守民, <《萬曆野獲編》 翻譯 및 註釋(1)> (《中國語文論叢》 第77輯, 2016) 참조.

내용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²⁾

본고는 《만력야획편》 전편에 대해 주석을 달고 번역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體例 상 첫 부분에 해당하는 권1 <列朝>의 앞부분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열조>는 권1과 권2에 수록되어 있으며, 총 109편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조> 부분에서는 명太祖의 등극부터 만력 연간에 이르기까지 명대 제도의 정비 과정, 황제와 황실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열조> 109편 중 앞부분인 <告天即位>, <奉先殿>, <京師帝王廟>, <帝王配享>, <孝子錄>, <御製文集>의 6편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그 내용은 명 태조의 즉위, 王廟와 祭祀, 황제의 글을 모아 놓은 어제문집 등에 관한 것이다.

본고의 번역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위주로 하되 의미의 원활한 순통을 위해 보조적으로 의역을 했다. 주석은 자구 풀이를 위주로 했고, 필요한 경우 관련 用例와 典故 등을 제시해 학술성을 높였다. 본고는 《만력야획편》(北京: 中華書局, 2015) 全3冊을 저본으로 하고, 《萬曆野獲編》 全3冊(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를 참조하였다. 인명 및 관직은 張搆之·沈起煒·劉德

2) 《만력야획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분류	편명 및 권수
황제와 황실 관련 인물과 사건	列朝(권1,2); 宮闈(권3); 宗藩(권4); 公主와 勳戚(권5); 內監(권6); 列朝, 宮闈, 宗藩, 公主, 勳戚, 內監(補遺권1)
官制	內閣(권6,8,9); 詞林(권10); 吏部, 戶部, 河漕(권11, 12); 禮部와 科場(권13, 14, 15, 16); 兵部(권17); 刑部(권18); 工部, 臺省(권19); 言事, 京職, 曆法(권20); 禁衛, 佞倖(권21); 督撫, 司道, 府縣(권22); 土司(권30); 內閣, 詞林, 吏部, 戶部, 禮部, 科場(補遺권2); 丙部, 刑部, 臺省, 言事, 京職, 曆法, 佞倖, 督撫, 司道(補遺권3); 土司(補遺권4)
인물	士人, 山人, 婦女, 妓女(권23); 叛賊(권29); 士人, 婦女(補遺권3)
지방과 외국	畿輔, 外郡(권24); 外國(권30); 畿輔(補遺권3); 外國(補遺권4)
풍속 오락	風俗, 技藝(권24); 玩具, 諧謔, 嗤鄙(권26); 風俗(補遺권3); 玩具, 諧謔, 嗤鄙(補遺권4)
문학 비평	評論, 著述, 詞曲(권25); 著述(補遺권4)
종교	釋道, 神仙(권27); 釋道, 神仙(補遺권4)
異事	果報, 徵夢, 鬼怪(권28); 穢祥(권29); 穢祥, 鬼怪(補遺권4)

重이 主編한 《中國歷代人名大辭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와 邱樹森이 主編한 《中國歷代職官辭典》(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1), 龔延明이 쓴 《中國歷代職官別名大辭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6) 등을 참조하였다.

2. 하늘에 즉위를 고하다(告天卽位)

太祖께서 보위에 오르려 하실 때, 먼저 그 이전 해 12월에 百官들이 등극 時期를 하늘에 아뢰기를 권하였으므로 주상께서 새 궁에 드시어 하늘에 절하며 고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중국은 宋의 운이 다하면서부터 天帝께서 사막의 眞人에게 명하여 중국에 들어와 천하의 주인이 되게 한 지 100여년이 지났으며 이제 그 운 또한 다하였습니다. 이에 천하의 백성과 땅을 호걸들이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다만 신에게는 천제께서 뛰어난 인재인 李善長과 徐達 등을 신의 보좌로 내려주셨기에 군웅의 활거를 평정하고 백성들을 논들에서 편안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백성에게 주인이 없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하며, 반드시 저를 군주로 추대하고자 하기에 신이 감히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내년 정월 4일 鍾山의 남쪽에 제단을 쌓고 의식을 갖추어 천제와 地神께 밝혀 고하겠습니다. 만약 신이 백성의 주인이 될 만하다면祭를 올리는 날에 천제와 지신께서 강림하시어 하늘이 맑고 기운이 청명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주시기를 엿드려 바랍니다. 만약 신이 그럴 만하지 않다면 그 날 세찬 바람이 불고 기이한 광경이 나타나게 하여 신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때 날씨가 계속 흐리다가 다음해 정월 초하루가 되자 맑아졌다. 그 날에 태양이 밝게 빛나서 하늘과 땅에 함께 제를 올리고 주상께서 남교에서 즉위하셨다. 이 문장에 따르면 먼저 천제께 고하여 감히 서둘러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찬 바람과 기이한 광경으로 불가함을 알려주시

기를 청했다. 이로 인해 천하가 공인했으니, 일찍이 符命을 거짓으로 꾸며서 세상의 이목을 가린 적이 없어 진실로 태평성세를 이룬 堯王, 舜王, 湯王, 武王의 마음 씀에 부합된다. 천고의 세월을 넘어 만세에 이어짐이 마땅하다.

<告天即位>

高皇帝³⁾將登寶位, 先於前一年之十二月百官勸進時. 上御新宮, 拜詞於天. 其略曰, 惟我中國自宋運告終, 帝命真人⁴⁾于沙漠, 入中國爲天下主, 百有餘年, 今運亦終. 其於天下人民土地, 豪傑分爭. 惟臣帝賜英賢李善長⁵⁾徐達⁶⁾等爲臣之輔, 戡定⁷⁾羣雄, 息民於田野. 臣下皆曰, 恐民無主, 必欲推尊. 臣不敢辭. 是用明年正月四日, 於鍾山⁸⁾之陽⁹⁾, 設壇備儀, 昭告上帝皇祇¹⁰⁾. 如臣可爲民主, 告祭之日, 伏望帝祇來臨, 天朗氣清, 惠風和暢, 如臣不可, 至日當烈風異景, 使臣知之.

是時連陰¹¹⁾, 入明年元旦卽晴. 至日, 日光皎潔, 合祭天地. 上卽位於南郊¹²⁾.

- 3) 高皇帝: 개국 황제의 시호로 '高帝'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明朝의 개국황제를 말하므로 명 太祖 朱元璋을 가리킨다.
- 4) 真人: 참된 道를 깨달은 사람, 특히 道教의 깊은 眞理를 깨달은 사람을 이른다. 《莊子》에서는 근원적인 도의 체득자를 의미하며 '神人', '至人'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 종교적 개념으로 변해서 천상의 신선세계에 상징된 관부의 고급관료, 천상의 신의 명령을 받은 지상의 지배자, 선도 수행자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1271년 수도를 大都(북경)으로 옮기고 元나라를 개국한 뒤, 1279년 南宋을 멸망시키며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된 원 世祖 쿠빌라이 칸(1215-1294)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명대 帝王廟에서 제사 지내는 중국 역대 제왕 중 원나라의 개국 황제로 원 세조를 모셨기 때문이다.
- 5) 李善長: 이선장(1314-1390)의 字는 百室이며, 濠州 定遠(지금의 安徽省 定遠縣) 사람이다. 명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으며 智謀가 뛰어났다. 장성한 뒤 朱元璋의 참모가 되어 큰 공을 세웠다. 洪武 초년에 左丞相을 지냈고, 후에 宣國公에 봉해졌다. 《元史》를 감수하고 《太祖訓錄》과 《大明集禮》 등의 서적을 편찬했다.
- 6) 徐達: 서달(1332-1385)의 자는 天德이고, 濠州 鐘離縣(지금의 安徽省 鳳陽縣 東北쪽) 사람이다. 명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명 태조 주원장을 도와서 洪武 원년(1368) 大都(지금의 北京)를 공격하여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右丞相을 지냈으며 魏國公에 봉해졌다.
- 7) 戡定: 평정한다는 뜻이다.
- 8) 鍾山: 중산은 古都 南京의 성지이며 현재 남경시 玄武區 紫金山에 위치해 있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승지로 유명하다.
- 9) 陽: 山의 남쪽 혹은 물의 북쪽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쪽을 의미한다.
- 10) 皇祇: 地神 혹은 地神과 天神을 합하여 부르는 말로, 여기서는 지신을 가리킨다.
- 11) 連陰: 계속 흐리거나 연일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 12) 南郊: 고대의 천자가 수도의 남쪽 교외에 제단을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을 말한

按是詞, 先告上帝, 以見未敢遽登至尊, 且請烈風異景以示不可. 是以天下爲公, 未嘗矯飾¹³⁾符命¹⁴⁾, 塗世耳目, 眞合堯舜¹⁵⁾湯¹⁶⁾武¹⁷⁾爲心也. 超千古而延萬世, 宜哉.

3. 봉선전(奉先殿)

奉先殿은 태조가 세운 것으로 선영을 받드는 곳이다. 무릇 節侯, 朔望, 薦新 및 忌日에는 모두 皇宮에서 우러러 절을 하고 제를 올려 고하였다. 백관들이 모두 미리 줄을 서지는 않고 차례대로 역대 제왕들의 神主 앞에 이르러 전대의

다.

- 13) 矯飾: 거짓으로 길모양만 꾸미는 것을 말한다.
- 14) 符命: 하늘에서 제왕에게 명을 받으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징조이다.
- 15) 堯舜: 唐虞의 堯王과 舜王을 말하며 태평성세를 이룬 대표적인 왕으로 칭송된다. 요왕은 중국 고대 전설상의 聖帝로 五帝의 한사람이다. 백성이 요왕을 잘 따라 세상이 평화로웠다고 하며, 순왕 역시 요왕의 뒤를 이어 善政을 베푼 왕이다. 요순 두 왕은 서로 제왕의 자리를 사양하였으나 일단 왕위에 오른 뒤에는 태평성대를 이룬 제왕의 모범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 16) 湯: 殷의 湯王을 가리킨다. 탕왕은 BC 18세기경에 활동한 중국의 황제이며 成湯 혹은 太乙이라고도 한다. 夏나라를 멸망시키고 商, 즉 殷나라를 세웠다. 전설에 의하면 신화적 인물인 黃帝의 후예라고 한다. 탕왕은 거북 등딱지에 쓰인 예언대로 하나의 포악한 군주 께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켰다. 온후하고 관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가뭄이 들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올렸는데,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비가 내려 목숨을 건졌다. 그의 모습은 9척(2.7m) 장신에, 얼굴은 회고 구레나룻을 길렀으며, 뽕죽한 머리와 6마디로 된 팔을 가지고 있었고, 몸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컸다고 묘사되고 있다.
- 17) 武: 周의 武王을 가리킨다. 무왕은 BC 12세기 周나라의 창건자이자 제1대 황제로 이름은 姬發이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그를 賢君으로 평가한다. 아버지 文王의 뒤를 이어 서쪽 변경에 있던 도시국가 주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는 西伯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문왕 때부터 은나라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무왕은 아버지의 뒤를 잇고 나서 다른 8개의 변경국가들과 연합하여 은의 마지막 황제이며 폭군이던 紂王을 몰아냈다. 은과의 마지막 전투는 대단히 치열했다. 은의 생존자들은 한반도 같은 먼 지역으로 달아나 이들 지역에 중국문화를 전파했다. 무왕은 주를 세우고 나서 동생 周公(周公)의 도움을 받아 봉건적인 통치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통치권을 강화했다. 이 제도는 주의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왕실 친척들과 家臣들에게 영토를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싸움에서 패한 은조차도 속죄의 대가로 이전의 지배영역 가운데 작은 지역을 나누어 받았다.

황제와 황후들까지도 합사했는데, 법도에 따라 예를 행했다. 또 崇先殿은 世宗이 처음 세운 것으로 興獻帝를 봉양했는데, 봉선전을 본떠 예를 행했다. 그 후에 '帝'에서 '宗'으로 올려 칭하고 또 봉선전에서 합사하게 되자 송선전을 쓰지 않게 되었다.

奉慈殿은 孝宗이 세운 것으로 생모인 孝穆紀后의 신주를 받들어 모셨으며 그 후에 조모 孝肅周后의 신주를 그 안에 奉安했다. 嘉靖 연간에 또 조모 孝惠邵后의 신주를 그 안에 봉안했다. 이것은 천자가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 것으로, 私家의 제사 같은 것이었는데, 가정 29년에 이르러 모두 그만두었다. 또 穆宗이 등극해서는 세종의 첫 황후 孝潔陳后의 신주를 옮겨 太廟에 합사했다. 그리고 孝烈方后의 신주를 宏孝殿으로 옮겼는데 옛 경운전이다. 또 생모 孝恪杜后의 신주를 神霄殿에 모시고 목종의 첫 황후 孝懿皇后의 신주를 그 뒤에 올려 합사했다. 금상께서 또 세 황후의 신주를 봉선전으로 옮기니 이 두 殿의 제사가 더 이상 거행되지 않았다. 지금 歲時와 기일에 제사지내며 고하는 것이 처음과 같은 것은 오직 봉선전 하나뿐이라서 궁정에서는 그것을 小太廟로 본다.

주상께서 매번 奉天殿에 올라 大朝會를 받을 때마다 반드시 먼저 봉선전을 알현하고 그 다음으로 兩宮의 모후를 찾아뵈인 연후 外殿으로 나가신다고 들었다. 대체로 대조회를 받을 때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목욕을 했으니 평소의 아침 조회처럼 간단하고 편하지는 않았다. 相公 張居正이 일을 기록할 때도 봉선전이 洪武 35년 10월에 지어져 五廟의 태황태후를 제사지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또 建文帝 말년 成祖 초기에 속한 것이니 태조 때의 일은 아니다. 상공 장거정이 어찌면 따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奉先殿>

奉先殿¹⁸⁾者, 太祖¹⁹⁾所建, 以奉先靈. 凡節候²⁰⁾朔望²¹⁾薦新²²⁾以及忌日,

18) 奉先殿: 봉선전은 중국 고대 궁전으로 北京의 紫禁城 內廷 동쪽에 위치한다. 명나라와 청

俱于大內²³)瞻拜祭告. 百官皆不得預列. 循至列聖²⁴), 追祀先朝帝后, 行禮如儀. 又崇先殿, 則世宗²⁵)初建, 以奉興獻帝²⁶), 效奉先爲之. 其後進稱宗, 亦附於奉先殿, 而崇先廢.

奉慈殿²⁷)者, 孝宗²⁸)所建, 以奉生母孝穆紀后²⁹), 其後以祖母孝肅周后³⁰)奉

나라 황실에서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던 家廟이다.

- 19) 太祖: 태조는 원래 선조를 지칭하는 말인데, 후대에 개국 제왕의 廟號로 쓰였다. 여기서는 明太祖 古皇帝 朱元璋(1328-1398)을 가리킨다. 주원장의 자는 國瑞이고 원래 이름은 重八인데, 후에 興宗으로 바꿨다. 濠州 鍾離(지금의 安徽省 鳳陽) 사람으로 명나라 개국 황제이다. 주원장은 어렸을 때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 出家도 했었다. 25세 때 郭子興이 이끄는 紅巾軍을 따라 元나라에 대한 항쟁에 참가했다. 1356년에 吳國公으로 추대되었고 徐達와 常遇春에게 명하여 중원을 북벌하고 몽고족의 원나라 통치를 무너뜨렸다. 그는 1368년 應天府(지금의 南京)에서 稱帝하고 국호를 大明으로 삼았으며 연호를 洪武로 정했다. 그 뒤 서남, 서북, 동북 등을 평정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각 분야에서 개혁을 시행하였다. 향년 71세의 나이로 병사했고 묘호는 太祖, 諡號는 古皇帝로 孝陵에 묻혔다.
- 20) 節候: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기후의 표준점, 즉 절기를 말한다.
- 21) 朔望: 삭일과 망일, 곧 陰曆 초하루와 보름이다.
- 22) 薦新: 철을 따라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을 神에게 먼저 올리는 일을 말한다.
- 23) 大內: 皇宮을 가리킨다.
- 24) 列聖: 역대 제왕들을 말한다.
- 25) 世宗: 명나라 제11대 황제인 朱厚熜(1507-1567)을 말한다. 주후충은 憲宗의 손자이고, 孝宗의 조카이며, 武宗의 사촌동생이다. 헌종의 아들인 興獻王 朱祐杭의 둘째 아들로, 武宗이 後嗣 없이 죽자 황제로 추대되었고, 황제가 된 뒤 그 아버지를 睿宗으로 추존하였다. 주후충은 명나라의 통치를 공고히 했으며 隆慶新政과 張居正의 개혁, 嘉隆萬大改革을 통해 나라의 기반을 닦았다. 주후충의 廟號는 세종이고, 연호는 嘉靖이다. 명대 황제 중에서 재위 기간(1521-1566)이 神宗 萬曆帝 다음으로 길다.
- 26) 興獻帝: 朱祐杭(1476-1519)을 가리킨다. 憲宗의 넷째 아들이자 世宗의 부친이고 孝宗의 이복동생이다. 모친은 邵宸妃이고 妻는 蔣氏이다. 成化 23년(1487)에 興王으로 받아들여졌고, 正德 14년(1519)에 죽자 武宗이 獻의 시호를 내렸으며, 정덕 15년(1520)에 顯陵에 묻혔다. 세종이 그에게 다시 知天守道洪德淵仁寬穆純聖恭儉敬文獻皇帝로 시호를 내렸으며 묘호는 睿宗이다.
- 27) 奉慈殿: 봉자전은 명나라 자금성 내 봉선전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成化 23년(1487)에 축조되었다. 자금성 안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궁전으로 봉선전 다음가는 중요한 건축물이었으나 嘉靖 15년(1536)에 폐지되었다.
- 28) 孝宗: 朱祐樞(1470-1505)를 말하며 연호는 弘治이고 명나라 제9대 황제이다. 憲宗 朱見深의 셋째 아들이고 생모는 孝穆紀太后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품이 너그러웠으며, 勤儉을 몸소 실천하고 政事에 매진하였다. 이에 대신들은 '弘治中興'이라고 칭송하였고 萬曆 연간 내각수보인 朱國楨은 그를 漢文帝, 宋仁宗과 함께 성군으로 평가했다. 홍치 18년(1505) 乾清宮에서 향년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고 泰陵에 묻혔다. 묘호는 孝宗이고 시호는 建天明道誠純中正聖文神武至仁大德敬皇帝이다.
- 29) 孝穆紀后: 孝穆皇后 紀氏(?-1475)를 가리킨다. 헌종 주견심의 후궁이자 효종 주우태의 생모이다. 기씨는 廣西 賀州의 이민족인 瑤族 출신으로, 헌종이 야오족 정벌을 하면서 공녀로 마쳐져서 후궁이 되었다가 헌종의 눈에 들어 임신한 뒤 효종을 낳았다. 기씨는 사후에

安³¹)其中. 嘉靖³²)中, 又安祖母孝惠邵后³³)於中. 此天子所以報誕育之恩, 若私祭然. 至嘉靖二十九年而罷之. 又穆宗³⁴)登極, 遷世宗元配³⁵)孝潔陳后³⁶)祔廟³⁷), 而徙孝烈方后³⁸)於宏孝殿³⁹), 故景雲殿也. 又奉生母孝恪杜后⁴⁰)於神霄殿, 而以

淑妃로 追封되었다. 시호는 恭恪莊僖淑妃인데, 효종이 즉위한 뒤 孝穆慈慧恭恪莊僖崇天承聖純皇后로 追諡하였다.

- 30) 孝肅周后: 孝肅皇后(?-1504) 周氏를 말한다. 英宗 朱祁鎮의 貴妃이며 헌종 주건심의 생모로 昌平(지금 北京의 서북부) 사람이다. 정통 12년(1447) 아들 주건심을 낳았으며, 천순 원년(1457) 영종의 후궁이 되어 貴妃에 봉해졌다. 그 뒤 천순 8년(1464) 헌종 주건심이 황위에 오르자 황태후에 책봉되었고, 손자인 효종 주우맹이 황위에 오르자 태황태후에 책봉되었다. 그의 부친은 周能으로 寧國公으로 추증되었고 동생 周壽와 周彥은 각각 慶雲侯와 長寧伯으로 봉해졌다. 주씨는 예법과 영종의 유언을 파기하고 황후의 자리를 탐냈다고 전해진다. 시호는 孝肅貞順康懿光烈輔天承聖皇后이다.
- 31) 奉安: 황제나 부친을 안장하거나 神位나 神像을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32) 嘉靖: 가정은 명나라 제11대 황제 世宗 朱厚熜의 연호로 1522-1566년에 해당한다.
- 33) 孝惠邵后: 孝惠皇后(1435-1522) 邵氏를 말한다. 헌종 주건심의 귀비이며 세종 주후종의 조모로 杭州 昌化 사람이다. 부친은 邵林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딸을 杭州 鎮守 太監에게 팔아 넘겼는데, 이로 인해 입궁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궁녀 생활을 하다가 헌종의 눈에 들어 成化 11년(1476) 흥헌왕 주우원을 낳은 뒤 성화 12년(1477) 宸妃가 되었으며 나중에 貴妃로 봉해졌다. 소씨는 흥헌왕 주우원 외에, 歧惠王 朱祐楨, 雍靖王 朱祐檣을 낳았다. 흥헌왕 주우원이 바로 세종 주후종의 생부이며, 주후종이 황위에 오른 뒤 睿宗 興獻帝로 추대 되었다.
- 34) 穆宗: 명나라 제12대 황제 朱載堉(1537-1572)를 말한다. 재위기간은 1566년부터 1572년 까지이며, 연호는 隆慶이다. 명 세종 朱厚熜와 杜康妃 사이에 태어난 세종의 셋째 아들이다. 생모 杜康妃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16세부터 독립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실의 폐단과 모순을 이해하였고 내외환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였다.
- 35) 元配: 이별하거나 사별한 첫 부인을 말한다.
- 36) 孝潔陳后: 孝潔肅皇后(1508-1528) 陳氏를 말하며 세종 주후종의 첫 황후로 元城(지금의 河北省 大名縣) 사람이다. 가정 元年(1522) 진씨가 입궁해서 황후가 되었다. 가정 7년(1528) 봄에 황후 진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세종이 다른 后妃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정작 황후에게는 냉정하게 대하자 황후가 화를 내며 술잔을 엮고 일어났다. 이 일로 세종이 대로했고 당시 임신 중이던 황후 진씨는 그 충격으로 유산을 했으며 그 뒤 우울증에 걸려 그해 10월 21세의 나이로 죽었다. 황후 진씨 사후에 처음에는 시호를 悼靈皇后라고 했다가, 禮部尙書 夏言의 의논으로 다시 개칭하여 시호를 孝潔皇后라고 추시하였다. 정식시호는 孝潔恭懿慈睿安莊相天聖聖肅皇后이다.
- 37) 祔廟: 신주를 조상의 묘에 모시고 숭배한다는 의미이다.
- 38) 孝烈方后: 孝烈皇后 (?-1547) 方氏로, 세종의 세 번째 황후이며 江寧(지금의 南京) 사람이다. 가정 13년(1534)에 두 번째 황후였던 張皇后가 폐위되고 방씨가 황후가 되었다. 가정 21년(1542) 궁녀 楊金英 등이 반역을 꾀해서 세종을 죽이려했는데, 이 때 방황후의 도움으로 화를 면했다. 野史에 따르면 가정 26년(1547) 어느 심야에 궁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세종은 겨우 피했으나 황후를 구하라는 어명을 내리지 않아서 方황후와 궁녀 수백 명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 사후 시호는 孝烈皇后이며, 정식시호는 孝烈端順敏惠恭誠祗天衛聖

上元配孝懿皇后⁴¹⁾ 祔享⁴²⁾ 其後. 今上又遷三后主於奉先, 而此二殿之祭, 亦輟不舉. 今歲時及忌日祭告如初者, 唯奉先一殿耳, 內廷因目之爲小太廟⁴³⁾.

聞主上每遇升殿⁴⁴⁾ 受大朝⁴⁵⁾, 必先謁奉先殿, 次及兩宮母后⁴⁶⁾, 然後出御外殿. 蓋甲夜⁴⁷⁾ 卽起盥沐⁴⁸⁾, 非如常朝御門⁴⁹⁾ 之簡便云. 張太岳相公⁵⁰⁾ 紀事, 又云

皇后이다. 세종은 효열황후의 신주를 자신과 함께 태묘에 두기를 원했지만, 목종 즉위 후 효열황후의 신주를 弘孝殿에 모셨다가, 만력 연간에 봉선전으로 옮겼다.

- 39) 宏孝殿: 弘孝殿이라고도 쓴다. 弘孝殿은 지금의 故宮 奉先殿區의 齋宮과 毓慶宮 일대에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원래 명칭은 景雲殿이었으나 隆慶 元年(1567)에 弘孝殿으로 명칭을 바꿨다. 明代 文헌에 弘孝殿과 宏孝殿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明史》, 《明實錄穆宗實錄》, 《明實錄神宗實錄》과 명 李東陽의 《大明會典》에서는 弘孝殿이라고 쓰고 있고, 명 劉若愚의 《酌中志》 卷十七 <大內規制紀略>와 清 嵇璜의 《欽定續通志》 卷一百十五에서는 宏孝殿이라 쓰고 있다.
- 40) 孝恪杜后: 孝恪皇后 杜氏(?-1554)로 명 세종의 妃嬪이었다. 가정 9년(1530)에 정식으로 입궁해서 康嬪으로 책봉되었고 가정 15년(1536)에 康妃로 책봉되었다. 효열황후, 鄭賢妃, 王貴妃, 閻貴妃, 韋惠嬪, 沈安妃, 盧靖妃, 沈貴妃와 같은 시기에 입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나이는 14-18세 전후로 추정된다. 가정 16년(1537) 세종의 셋째 아들 朱載堉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穆宗이다. 가정 33년(1554) 향년 40세 전후의 나이로 죽었다. 사후에 시호를 榮淑康妃로 추송하였고, 아들인 주재후가 황제로 즉위함에 따라, 孝恪淵純慈懿恭順贊天開聖皇太后로 추존하고, 신주를 神霄殿에 모셨다.
- 41) 孝懿皇后: 孝懿莊皇后 李氏(?-1558)로 명 목종 주재후의 본처이며 창평 사람이다. 그 부친은 李銘이다. 가정 32년(1553)에 주재후와 혼인하여 裕王妃로 봉해졌고 아들 朱翊鉞과 딸 하나를 낳았지만 모두 요절하였다. 가정 37년(1558)에 죽었는데, 주재후가 즉위한 후 이씨를 孝懿皇后로, 아들 주익익을 憲懷太子로, 딸을 蓬萊公主로, 이씨의 부친을 德平伯으로 봉했다. 神宗이 즉위한 후에 孝懿貞惠順哲恭仁儷天襄聖莊皇后로 추존했다.
- 42) 祔享: 합사한다는 의미이다.
- 43) 太廟: 중국 고대 황제의 종묘를 말한다.
- 44) 殿: 明代에 황제 즉위, 황제나 황후의 생일 축하, 元旦이나 冬至 축하 및 大朝會, 연회, 出征式 등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던 곳은 奉天殿(淸 順治 2년에 太和殿으로 명칭이 바뀜)이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殿은 奉天殿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45) 大朝: 元旦, 冬至 등에 거행하던 규모가 큰 朝會를 말한다.
- 46) 兩宮母后: 생모인 孝定皇太后 李氏(1546-1614)와 孝安皇后 陳氏(1536-1596)를 가리킨다.
- 47) 甲夜: 해질녘인 저녁 7시부터 이튿날 동틀기 전 5시까지의 시간을 甲夜, 乙夜, 丙夜, 丁夜, 戊夜의 五夜로 나눈다. 五夜 중 갑야는 初更으로 저녁 7-9시에 해당한다.
- 48) 盥沐: 목욕한다는 뜻이다.
- 49) 御門: 명·청대에 황제들은 黃宮 奉天門에서 조정의 회의를 주관하고 내각과 각부 대신들의 보고를 받고 政事를 논의했다. 이것을 ‘御門聽政’이라 하는데, 제왕들이 정사를 처리하는 일종의 형식으로 이른 아침에 행하여 ‘早朝’라고도 한다. 명대에는 문무백관들이 매일 아침 奉天門에서 조회를 보았다.
- 50) 張太岳相公: 明代의 정치가 張居正(1525-1582)을 가리키며 자는 叔大, 호는 太岳으로 湖廣 江陵(지금의 湖北) 사람이다. 가정 26년(1547)에 進사가 되었다. 隆慶 원년(1567)에 禮部右侍郎 겸 翰林院學士를 거쳐 吏部左侍郎 겸 東閣大學士가 되어 《世宗實錄》 總裁를

奉先殿爲洪武三十五年⁵¹⁾十月所作, 以祀五廟⁵²⁾太皇太后, 則又屬之革除⁵³⁾末年文皇⁵⁴⁾鼎建⁵⁵⁾, 非太祖矣. 此公或別有據.

4. 京師의 帝王廟(京師帝王廟)

太祖 洪武 6년에 金陵에 帝王廟를 짓고, 7년에 비로소 像을 세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 화재를 당해서, 雞鳴山の 남쪽에 다시 지었다. 成祖께서 燕京을 도읍으로 삼았을 때 제왕묘를 미처 갖추지 못했으므로, 郊壇에서 제사를 함께 지낼

말았다. 그 후 禮部尙書 겸 武英殿大學士로 승진했고 少保 겸 太子太保가 되었다. 목종이 죽고 신종이 즉위하자 그가 환관 馮保와 모사하여 高拱을 몰아내고 首輔를 대신했다. 만력 초에 신종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10여년을 장거정이 실권을 행사하며 명나라의 세력을 만회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육상무역을 재개하여 몽골인의 남침을 막았고, 동북지방 建州衛를 李成梁으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으며, 서남지방 廣西의 搖族과 壯族을 평정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대규모의 행정정비를 단행하고, 궁정의 낭비를 억제하였으며, 黃河의 대대적인 治水공사를 완성시켰다. 또 전국적인 호구조사와 토지측량을 단행하고, 지주의 부정을 막아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죽었다. 다만, 그의 治政이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반감을 품은 자도 많았다. 저서에 《書經直解》 8권과 《張太岳集》 47권 등이 있다.

- 51) 洪武: 洪武는 명 태조 주원장의 연호로 1368년-1398년의 기간에 해당한다. 즉 실제로 홍무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총 31년이다. 1399년 태조 주원장의 뒤를 이어 손자인 建文帝 朱允炆이 즉위하면서 연호를 建文으로 바꿨다. 건문이라는 연호는 1402년 건문제가 靖難의 變으로 숙부인 朱棣에게 황위를 빼앗길 때까지 사용되었다. 成祖 朱棣는 황제가 된 뒤 건문이라는 연호를 폐지하고, 1403년 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전까지 태조의 연호였던 홍무를 계속 사용했다. 건문이라는 연호는 명 神宗 23년(1595)에 회복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홍무 35년은 실제로는 건문제 4년인 1402년을 가리킨다.
- 52) 五廟: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와 始祖의 묘를 가리킨다.
- 53) 革除: 명 成祖가 建文帝의 계위를 빼앗은 후 건문제의 연호를 없애고 '洪武'라고 칭했는데, 신하들이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꺼려서 건문제의 연호를 '革除'라고 칭했다.
- 54) 文皇: 명 成祖 朱棣(1360-1424)의 시호로, 전체 명칭은 啓天弘道高明肇運聖武神功純仁至孝文皇帝이다. 명 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홍무 3년(1370)에 燕王에 봉해졌다. 1399년에 靖難의 變을 일으켜 조카 建文帝 朱允炆에게서 황위를 빼앗아 1402년 명나라 3대 황제가 되었다. 그 다음해에 연호를 永樂이라고 하였으며, 1403년부터 1424까지 사용하였다. 1421년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겼다.
- 55) 鼎建: 營建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기반을 세우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는 초기를 의미한다.

수밖에 없었다. 嘉靖 10년에 이르러 비로소 文華殿에 위패를 두어 제사를 지냈다.

그 해 中允 廖道南이 靈濟宮의 二徐眞君 徐知證과 徐知諤을 치우고 역대 제왕의 신위와 역대 명신들의 신위로 바꾸어 둘 것을 청하였다. 주상께서 예부에서 그것을 의논하도록 하명하셨다. 그 때 李任邱가 春卿이 되어, 徐知證과 徐知諤이 名教를 어겨 죄를 얻었으니 본래 철거해야 하나 자리가 협소하여 침묘를 다시 두기에 부족하므로 좋은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께서 그렇다고 여기시고, 工部에 명을 내려 땅의 地勢를 자세히 살피라 하셨다. 阜成門 안 保安寺의 옛 터가 정결하고 西壇에도 통해 있어 여기에 묘를 두기 적당했다. 주상께서 그 말을 따르셨다. 다음 해 여름 공사가 끝나자, 주상께서 친히 제사에 임하시니 지금의 제왕묘가 이것이다. 같은 해에 修撰 姚涑가 바로 元世祖의 제사를 폐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이임구는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상주하여 없던 일이 되었다. 가정 24년에 이르러 마침내 없애 버렸는데, 識者들이 그것을 비난하자 費宋가 동의했다. 요도남이 상소를 올려서, 大慈恩寺와 靈濟宮을 병칭하면서 대자은사를 폐하여 辟雍으로 바꾸고 養老의 예를 행하려 하였다. 예부의 신하들은 기존의 국자감을 황제께서 행차하시는 곳이라 여겼으므로 다른 곳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절 안의 歡喜佛은 옛 원나라의 추악한 풍속으로 응당 퇴출되어야 했다. 주상께서 그것을 옳다 하시며, 오랑캐의 귀신과 음란한 상을 바로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몇 년 안 되어 이 절은 땅이 평평하게 깎이어 蹴鞠場이 되었다. 邵元節과 陶仲文 두 방사가 영제궁 등을 관리 감독하고 천하의 도교를 이끌어 재상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이임구가 먼저 이미 주상의 뜻을 헤아려서 이 궁을 보존하였으니 지혜롭다.

<京師⁵⁶⁾帝王廟>

太祖洪武⁵⁷⁾六年建帝王廟⁵⁸⁾於金陵⁵⁹⁾, 七年始設塑像, 未幾遇火, 又建于雞鳴山⁶⁰⁾之陽. 及文皇⁶¹⁾都燕⁶²⁾, 未遑設帝王廟, 僅于郊壇⁶³⁾附祭. 至嘉靖⁶⁴⁾十年, 始爲位於文華殿⁶⁵⁾而祭之.

其年, 中允⁶⁶⁾廖道南⁶⁷⁾, 請撤靈濟宮⁶⁸⁾二徐眞君⁶⁹⁾, 改設歷代帝王神位及歷

56) 京師: 국도, 수도, 서울의 뜻이다.

57) 太祖洪武: 주 19)와 주 51) 참조.

58) 帝王廟: 帝王廟는 伏羲와 軒轅을 비롯한 선조부터 명·청대에 이르는 역대 제왕 및 명신들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곳이다. 제양묘는 명 嘉靖 10년(1531) 保安寺 옛터에 처음 세웠는데, 오늘날의 北京 西城區 阜成門 內大街 북쪽에 위치한다.

59) 金陵: 춘추 시대 이후 사용된 南京의 옛 이름으로, 江蘇省의 省都이다. 삼국시대 吳나라와 南北朝時期的 東晉, 宋, 齊, 梁, 陳의 수도였으며, 명대 이전까지 줄곧 중국 동남지역의 경제문화 중심지였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개국한 1368년부터 1421년 명 成祖가 북경으로 천도할 때까지 명나라의 수도였다.

60) 雞鳴山: 계명산은 北極閣 또는 欽天山이라고도 하는 南京 성안에 있는 언덕의 옛 이름이다. 닭장 모양으로 생겨서 '雞籠山'이라고도 부르며, 鼓樓의 동쪽에 있다.

61) 文皇: 주 54) 참조.

62) 燕: 周代 제후국의 이름으로, 지금의 河北省 북부와 遼寧省 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周代 이후로 燕이 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여기서는 영락제가 燕王이던 시절에 거했던 燕京(지금의 북경 지역)을 가리킨다.

63) 郊壇: 고대에 제사를 위해 흙으로 쌓은 단으로, 주로 수도의 남쪽 지역에 세웠다.

64) 嘉靖: 주 32) 참조.

65) 文華殿: 명 영락 18년(1420)에 세워졌으며, 명대에는 황태자의 東宮이었고, 清代에는 經筵을 거행하던 곳이었다. 문화전은 처음에는 황제의 便殿이었다가 나중에 경연을 행하는 곳이 되었다. 가정 17년(1538)에 문화전 뒤쪽에 聖濟殿을 지었으나, 明末 李自成이 紫禁城에 쳐들어가면서 문화전 건축물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淸 康熙 22년(1683) 重建하였으며, 乾隆 연간에 성제전 옛터에 文淵閣을 지었다. 문화전 뒤쪽의 文淵閣은 藏書樓인데, 《四庫全書》 49000여권이 이곳에 보관돼 있다.

66) 中允: 관직명이다. 漢代에 둔 벼슬로 태자의 속관이며 中盾이라고도 했다. 南朝의 宋나라와 齊나라에서는 中舍人이라고 불렀다. 唐나라 貞觀 시기에 다시 中允으로 바꾸었고, 詹事府에 속했으며, 侍從, 禮儀, 駁正, 上奏 등의 일을 맡았다. 중윤은 門下侍郎에 해당되고, 中舍人은 中書侍郎과 같다. 원대에도 이 직책이 있었고, 명대에는 左·右春坊을 모두 중윤이라고 불렀으며, 左中允과 右中允의 구별이 있었다. 청대에는 만주족과 한족 각 1명씩을 중윤으로 두었고 모두 正六品에 해당됐다.

67) 廖道南: 요도남(?-1547)의 자는 鳴桴이고 蒲圻(지금의 湖北省 동남부에 위치함)사람이다. 正德 16년(1521) 진사이며, 翰林院編修에 제수되었다. 가정 4년(1525)에 《明倫大典》을 편찬하고, 중윤에 발탁되어 日講官을 맡았으며, 관직은 侍講學士까지 지냈다. 저서에 《楚紀》 60권과 《殿閣詞林記》가 있다.

68) 靈濟宮: 영제궁은 道教 사당으로, 福建省 福州시 閩侯縣 靑圃鄉에 있다. 五代 때에 처음

代名臣。上下其議於禮部。時李任邱⁷⁰爲春卿⁷¹，謂徐知證知諤⁷²得罪名教⁷³，固宜撤去，但所在窄隘⁷⁴，不足改設寢廟⁷⁵，宜擇善地。上以爲然，令工部相地⁷⁶。以阜成門⁷⁷內保安寺⁷⁸故址整潔，且通西壇⁷⁹，可於此置廟。上從其言。次年夏竣役⁸⁰，上親臨祭，今帝王廟是也。是年，修撰⁸¹姚涑⁸²卽議黜元世祖⁸³

세워졌고 처음에는 大王廟라고 명명했으나, 명 성조 영락 15년(1417)에 重建한 뒤 영제 궁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영락 15년(1417)에 성조는 또 詔書를 내려 베이징 皇城 서편에 福建 靑圃靈濟宮의 양식을 본떠 洪恩靈濟宮을 짓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제궁은 베이징의 홍은영제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69) 二徐眞君: 二徐眞君은 민간에서 숭배하는 도교의 신이다. 이서진군 중의 하나는 徐知證이고 다른 하나는 徐知諤으로, 五代 때 南吳의 權臣인 徐溫의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이다. 서온이 죽은 뒤 그의 養子인 徐知詰가 楊씨를 대신해 황제라 칭하고 南唐을 세웠다. 그 후 서지증은 江王에 봉해졌고, 서지악은 饒王에 봉해졌다. 이 두 사람은 宋代에 福建 지역 백성들이 모시는 민간 신앙의 眞人이 되었다. 宋·元代에는 福建 지역의 地方神이었으나, 명대에 二徐(徐知證과 徐知諤)의 名義로 曾甲이라는 사람이 영락제의 명을 고친 뒤, 영락제가 영락 16년(1418) 二徐를 眞君에 봉했다.
- 70) 李任邱: 李時(1471-1538)를 가리킨다. 이시의 자는 宗易이고, 호는 序庵이며, 任丘(지금의 河北省 任丘) 사람이다. 弘治 15년(1502) 진사이며, 編修와 禮部右侍郎을 거쳐 가정 6년(1527)에 禮部尙書가 되었다. 가정 9년(1530)부터 가정 10년(1531)까지 北京의 동서남북 四郊에 天壇, 地壇, 日壇, 月壇의 四壇을 건설하였다. 저서에 《南城召對錄》, 《日下舊聞》, 《列卿記》 등이 있다.
- 71) 春卿: 周대에 春官은 六卿 중 하나였고, 禮治를 관장하였으므로, 그 뒤 禮部尙書를 春卿이라고 불렀다.
- 72) 徐知證知諤: 주 69)에서 말한 이서진군인 서지증과 서지악을 말한다.
- 73) 名教: 명분을 바로잡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예교를 말하는데,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규제하던 규범이다.
- 74) 窄隘: 비좁다, 협소하다는 의미이다.
- 75) 寢廟: 고대에 宗廟의 正殿은 廟라 하고, 後殿은 寢이라 했으며, 이 둘을 합쳐 寢廟라고 했다.
- 76) 相地: 주택이나 묘지의 지형과 風水를 살펴서 吉凶을 정하는 것이다.
- 77) 阜成門: 阜成門은 오늘날 北京 西城區 중부에 있다. 元代에는 平則門이라고 했고, 명 正統 4년(1439)에 재건한 뒤 부성문이라고 불렀다.
- 78) 保安寺: 보안사는 명 正統 연간에 황제의 명으로 지어졌고, 가정 26년에 재건했으며, 宣武門 밖 保安寺街에 있었다.
- 79) 西壇: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제단으로 서쪽에 위치한다.
- 80) 竣役: 일을 완성하거나 공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 81) 修撰: 관직명이다. 唐代에는 史館에 修撰이 있었는데, 국사를 편찬하는 일을 관장했다. 宋代에는 集英殿과 右文殿 등 수찬이 있었고, 元代에 이르러 비로소 한림원에 수찬을 두었다. 명·청대에는 원대를 따라 일반적으로 殿試 발표가 난 뒤, 壯元에게 翰林院修撰을 제수했다.
- 82) 姚涑: 姚涑(?-1537)의 자는 維東이고, 호는 明山이며, 浙江 慈溪현 사람이다. 명 世宗 가정 2년(1523)에 壯元으로 급제하여 한림원수찬에 제수되었다.
- 83) 元世祖: 元世祖 쿠빌라이 칸(1215-1294)은 1271년 수도를 大都(북경)으로 옮기고 원나

祀, 李任邱亦執奏以爲不可而止. 至二十四年, 竟斥去, 識者非之, 則費文通⁸⁴)迎合也. 廖中允疏, 以大慈恩寺⁸⁵)與靈濟並稱, 欲廢慈恩改辟雍⁸⁶), 行養老之禮⁸⁷). 禮臣以既有國學⁸⁸)爲至尊臨幸之地, 似不必更葺別所.

唯寺內歡喜佛⁸⁹), 爲故元醜俗, 相應毀棄. 上是之, 謂夷鬼淫像可便毀之. 不數年而此寺鏹爲鞠場⁹⁰)矣. 邵陶兩方士⁹¹), 以提督靈濟等宮, 領天下道教入銜⁹²)矣. 任邱先已測上意, 故存此宮, 智哉.

라를 개국한 뒤, 1279년 南宋을 멸망시키며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 84) 費文通: 費宋(1483-1548)를 가리킨다. 비체의 자는子和이고 호는鐘石이며, 江西鉛山縣橫林(지금의 柴家埠) 사람이다. 正德 6년 진사로 翰林院編修에 제수되었다. 정덕 27년(1548)에 少保의 관직을 더했으나 그해 겨울 병에 걸려 죽었다. 시호는 文通이다. 저서에 《少保文通公摘稿》, 《鐘石集》, 《禮部集》, 《費文通選要集》 등이 있다.
- 85) 大慈恩寺: 대자은사는 唐나라 때 長安城 晉昌坊(지금의 陝西省 西安시 남쪽)에 위치했으며, 중국 불교 중 唯識宗의 본산이다. 대자은사는 당 太宗 貞觀 22년(648)에 태자인 李治가 모친인 文德皇后 孫씨를 추모하기 위해 건설했다. 오늘날의 대자은사는 명 憲宗 成化 2년(1466)에 당 慈恩寺 西塔院의 토대 위에 지은 것이다.
- 86) 辟雍: 원래 西周의 天子가 세운 대학인데, 東漢 이후에 대대로 벽옹을 두었다. 北宋 때는 太學의 예비학교였지만, 다른 조대에는 모두 鄉飲, 大射 또는 祭祀를 행하던 곳으로 사용되었다.
- 87) 養老之禮: 고대에 훌륭한 미덕을 지닌 노인에게 때에 맞춰 술과 음식으로 공경하는 예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88) 國學: 국가감을 대표로 하는 고대의 국립학교를 가리킨다.
- 89) 歡喜佛: 환희불은 티베트에서 전해진 불교의 本尊神으로, 불교의 欲天과 愛神이다. 그 중의 男體는 法을 대표하고 女體는 지혜를 대표하는데, 남체와 여체가 서로 꼭 끌어안고 있어 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지고 서로 일치하여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불교의 각 파에 모두 불상이 있지만, 환희불은 밀종에만 있어, 티베트 불교 사원에만 모셔져 있다.
- 90) 鞠場: 고대에 蹴鞠을 하던 장소를 말한다. 평평한 광장에 삼면을 낮은 담으로 두르고, 한 쪽에는 관람석을 두었다. 축구는 오늘날의 축구와 비슷한 고대의 공차기 놀이이다. 쌀겨를 넣은 가죽 주머니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차던 놀이이다.
- 91) 邵陶兩方士: 道家의 方士 邵元節과 陶仲文을 가리킨다. 邵元節(1459-1539)은 龍虎山 淸宮 達觀院의 도사로, 자는 仲康이고 호는 雪崖이며 貴溪 사람이다. 가정 3년(1524)에 북경에 온 뒤 가정 18년(1539) 죽을 때까지 명 世宗의 총애를 받았다. 가정 5년(1526)에는 북경에 있는 朝天宮, 顯靈宮, 靈濟宮을 관리하면서 도교를 총괄하여 이끌었다. 저서에 《太和文集》이 있다. 陶仲文(1475-1560)의 原名은 典眞이고, 湖北성 黃岡 사람이다. 소원절의 친구이며, 소원절의 추천으로 입궁한 뒤 역시 죽을 때까지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 92) 入銜: 조정의 고위 관리가 宰相의 관직명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재상의 직책은 권위와 지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주지는 않고, 종종 재상의 직함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왕이 배향하다(帝王配享)

태조께서는 옛 것을 본 때 역대 제왕을 제사지내면서 공신들을 함께 配享했다. 다만 宋나라 태조의 옆에는 趙普가 비록 開國功臣이긴 하지만 태조에게 불충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함께 놓지 않았다. 말씀은 엄정하고 뜻은 올바른 것이 마치 앞으로 蹇義와 夏原吉 등의 여러 신하들이 옛 주인인 建文帝를 배반하고 의로운 군대인 燕王 朱棣에게 넘어갈 것을 豫見한 듯하니 태조께서는 진실로 성인이다. 元世祖의 배향이라면 安童과 阿朮 두 사람을 빼고 木華黎와 伯顏을 넣었으니 특히 태조의 남다른 견해이다. 세종에 이르러 원나라의 군신들과 함께 다 없었는데, 그 당시 몽고족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원통해하며 漢武帝가 匈奴를 저주한 옛이야기를 인용했다.

<帝王配享>

太祖⁹³⁾ 倣古, 祀歷代帝王, 俱以功臣配, 唯宋太祖⁹⁴⁾之側, 以趙普⁹⁵⁾雖開國功臣, 然不忠於太祖, 擯不得預. 詞嚴義正, 似預知他日蹇、夏⁹⁶⁾諸臣背故主投義師⁹⁷⁾者, 眞聖人也. 若元世祖⁹⁸⁾之侑食⁹⁹⁾, 則罷安童阿朮二人¹⁰⁰⁾, 而進木華

93) 太祖: 주19) 참조.

94) 宋太祖: 송 태조 趙匡胤(927-976)의 자는 元朗이고 어릴 때 이름은 香孩兒와 趙九重이다. 송나라의 開國 황제다.

95) 趙普: 趙普(922-992)의 자는 則平이고, 幽州 薊 사람으로, 나중에 洛陽으로 옮겼다. 五代 때부터 北宋 초까지의 저명한 정치가이며, 북송의 개국공신이다.

96) 蹇夏: 蹇은 蹇義(1363-1435)를 말하고, 夏는 夏原吉(1367-1430)을 가리킨다. 건의는 명 태조, 建文帝, 成祖, 仁宗, 宣宗, 英宗 등 여섯 임금을 모신 명대 대신으로, 자는 宜之이고, 원래 이름은 瑄이며, 巴현(지금의 重慶市) 사람이다. 홍무 18년(1385) 진사로 中書舍人에 제수되었는데 태조의 뜻에 맞게 일을 하여, 태조가 그를 신임하며 義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靖難의 변이 일어나자 자발적으로 燕王 朱棣에게 귀순하였고, 이후 吏部尙書, 少師, 太師 등을 역임했다. 하원길은 明初의 重臣으로, 자는 維喆이고 湖南성 湘陰 사람이다. 건의와 마찬가지로 태조의 신임을 받았다. 정난의 변을 통해 성조가 즉위한 뒤 계속해서重任을 맡으면서 건의와 함께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黎¹⁰¹)與伯顏¹⁰²), 尤太祖獨見. 至世宗¹⁰³)并元君臣俱去之, 時恨虜寇入犯, 用漢武帝¹⁰⁴)詛匈奴故事也.

6. 효자록(孝慈錄)

대대로 부모의 喪 중에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을 기피하였다. 사대부는 특히 소문내고 싶지 않아했으니, 불효로 여겨질까 걱정해서였다. 그러나 태조께서는 《禦製孝子錄序》에서 이미 代를 잇는 큰 일을 한 것이니 불쌍히 여겨 너그럽이 용서를 베풀라고 쓰셨다. 穆宗이 裕王府에서 만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憲懷太子이다. 이 때가 母妃 杜氏의 喪이 끝난 지 갓 1년이 될 때라서 세종이 탐탁치 않아했다. 少詹事 尹臺가 《어제효자록서》를 인용해 해명하자 주상께서 비로소 마음을 푸셨다. 南朝의 宋文帝가 喪中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비밀로 하다가 3년이 되자 비로소 詔書를 내렸다.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97) 義師: 정의를 위해 일어난 군대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정난의 변을 일으킨 명 성조 朱棣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98) 元世祖: 주 83) 참조.

99) 侑食: 配享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임금의 생전에 공로가 특히 많은 신하가 임금보다 뒤에 죽으면 선왕의 廟庭에 그 신주를 모셨는데 이것을 말한다.

100) 安童阿朮二人: 安童(1248-1293)은 蒙古 札剌亦兒部 사람으로, 木華黎의 4대 손이다. 원 세조 쿠빌라이 시절에 두 차례나 재상을 지냈다. 阿朮(1227-1281)은 元初의 장군으로, 兀良部 사람이다. 速不臺의 손자이자, 兀良合臺의 아들이다. 원 세조 때 송을 멸망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101) 木華黎: 木華黎(1170-1223)은 木合里, 摩和賚, 穆呼哩라고도 쓴다. 몽고제국의 칭기즈 칸 테무진 수하의 猛將이자 개국공신이다.

102) 伯顏: 伯顏(1236-1295)은 몽고 八鄰部 사람으로, 원대의 대장이다. 至元 11년(1274) 阿朮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南宋 정벌에 나서, 지원 13년(1276)에 남송을 멸망시킨다.

103) 世宗: 주 25) 참조.

104) 漢武帝: 漢武帝(B.C.156-B.C.87)의 이름은 劉徹이고, 西漢의 제 7대 황제로 걸출한 정치가이자 전략가 겸 시인이다. 16세에 황제가 되어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으며, 흉노, 남만, 위만조선 등의 정벌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고,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 孝慈錄 >

世以父母憂¹⁰⁵制中舉子¹⁰⁶爲諱. 士大夫尤不欲彰聞¹⁰⁷, 慮涉不孝. 然太祖¹⁰⁸作孝慈錄序¹⁰⁹中, 已爲嗣續¹¹⁰大事, 曲賜¹¹¹矜貸¹¹²矣. 穆宗¹¹³在裕邸¹¹⁴生長子, 是爲憲懷太子¹¹⁵, 時去母妃杜氏¹¹⁶喪方朞¹¹⁷, 世宗¹¹⁸不悅. 得少詹事¹¹⁹尹臺¹²⁰引孝慈錄序爲解, 上始釋然. 南朝宋文帝¹²¹諒陰¹²²中生子, 祕¹²³之至三年始下詔. 其來久矣.

105) 憂: 부모의喪을 가리킨다.

106) 舉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말한다.

107) 彰聞: 널리 전해지는 것을 뜻한다.

108) 太祖: 주 19) 참조.

109) 孝慈錄: 명 태조 주원장이 쓴 《禦制孝子錄序》를 가리킨다.

110) 嗣續: 代를 잇는다는 뜻이다.

111) 曲賜:윗사람이 下賜하거나 돌려주는 행위에 대한 존칭이다..

112) 矜貸: 불쌍히 여겨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113) 穆宗: 명 穆宗 朱載堉(1537-1572)는 명대 제 12대 황제로 재위기간은 1566년부터 1572년까지이며, 연호는 隆慶이다. 명 세종 朱厚熜과 杜康妃 사이에 태어난 세종의 셋째 아들이다.

114) 裕邸: 명 목종 주재후는 세종의 셋째 아들로 가정 18년(1539) 裕王에 봉해진 뒤 만 16세가 되면서 황궁을 나가 裕王府에서 13년 동안 살다가, 가정 45년(1566)년 세종이 崩御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裕邸는 목종이 유왕 시절에 살던 유왕부를 말한다.

115) 憲懷太子: 명 목종의 맏아들인 朱翊鉞(1555-1559)을 가리킨다. 가정 34년(1555) 당시 裕王이던 주재후와 孝懿庄皇后 李氏 사이에 태어나 가정 38년(1559)에 4세의 나이로 죽었다. 목종이 즉위한 융경 원년(1567)에 憲懷太子로 追敍되었다.

116) 母妃杜氏: 주 40) 참조.

117) 朞: 만 1년을 뜻한다.

118) 世宗: 주 25) 참조.

119) 少詹事: 관직명이다. 秦漢 시기에 詹事를 두었는데 황후와 태자의 집안 일을 관장했다. 東漢 때 폐지되었다가 魏晉 시기에 다시 설치되었다. 唐代에는 詹事府를 세우고 太子詹事 1명과 少詹事 1명을 두어 동궁 안팎의 여러 업무를 총괄하게 했는데, 당 이후로 이를 따랐다.

120) 尹臺: 尹臺(1506-1579)의 자는 崇基이고 호는 洞山이며 江西 永新현 사람이다. 가정 14년(1535) 진사로 編修에 제수되었고, 관직은 南京禮部尙書에 이르렀다. 저서에 《洞麗堂集》과 《思補軒稿》가 있다.

121) 宋文帝: 宋文帝 劉義隆(407-453)은 중국 남북조 시기 劉宋 왕조의 세 번째 황제로, 송 武帝 劉裕의 셋째 아들이다. 424년에 즉위했고, 재위기간은 30년이며, 연호는 元嘉이다.

122) 諒陰: 喪중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황제의 경우에 사용한다.

123) 祕: 숨기다, 비밀하다는 뜻이다.

7. 황제의 문집(御製文集)

황제의 문집은 송대보다 더 존중된 적이 없다. 조대마다 하나의 閣을 두어 그것을 보존하였는데, 龍圖閣과 天章閣 이후로는 모두 祕閣에 거두어 보관하고 學士, 直學士, 待制, 直閣 등의 여러 관리를 두었으니 만약 이 조대에 문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집을 빠뜨린 것이다. 그래서 徽宗이 변방으로 피란하여 남쪽으로 가셔도 오히려 遺文들을 두루 찾아서 敷文閣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현 왕조에서는 유일하게 太祖 高皇帝와 宣宗 章皇帝만이 문집을 모아 판각하여 궁중에 귀중히 보관하였다. 또한 마땅히 하나의 각을 특별히 마련해서 황제의 훌륭한 문장을 받들고 지속적으로 문장을 관장하는 신하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후대의 훌륭한 전장 제도에 담긴 遺意를 기탁하는 것이 또 현 왕조의 훌륭한 업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역대로 여러 제왕들이 모두 문필에 관심을 기울여서, 世宗 때에는 禮樂을 제정하고 제사의 법도를 바꾸기에 이르렀고 당시의 훌륭한 문장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 아래로는 詞曲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대로 武宗 때까지 전해진 여러 제왕들의 작품이라면 모두 하늘이 내려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흩어져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다방면으로 수집해서 각각 하나의 문집으로 엮어낼 수 있으니 閣과 官을 두어 문관들이 그 안에서 머물며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禮樂이 분명히 갖춰진 조대에 가까워지는 것이니 전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원통함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宋나라는 용도각을 가장 중시해서 學士를 老龍으로, 直學을 大龍으로, 待制를 小龍으로, 直閣을 假龍으로 불렀다. 지금은 오직 禮部의 儀制司에만 또 大儀, 中儀, 小儀라는 호칭이 있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 같다. 唐나라 사람들은 또 諫議大夫를 大坡로, 拾遺를 小坡로, 散騎常待를 大貂로, 補闕을 小貂로 부르고, 또 吏部尙書를 大天으로, 郎中을 小天이라 했다. 참 기이하다.

<御製文集>

帝王御集, 莫尊崇于趙宋¹²⁴, 每一朝則建一閣¹²⁵度¹²⁶之, 如龍圖天章¹²⁷而下, 俱爲收貯祕閣¹²⁸, 置學士直學士待制直閣¹²⁹諸官, 若此朝無集則闕之. 卽徽宗¹³⁰播遷¹³¹裔土¹³², 南渡尙能博訪遺文, 以建敷文閣¹³³是矣. 本朝唯太祖

- 124) 趙宋: 宋나라 황실의 姓이 趙이므로 송나라를 조송이라 칭한다.
- 125) 閣: 송대에 문헌을 보관하고 정리 및 연구한 곳으로, 선제의 유지가 담긴 문물을 받들기 위해 황제가 서거할 때마다 하나의 '閣'을 설치했다.
- 126) 度: 보관한다는 의미이다.
- 127) 龍圖天章: '龍圖閣'을 말하며, 송 眞宗 咸平(998-1003) 시기에 會慶殿 서쪽에 지어, 송 太宗의 御書와 文集, 서적, 그림, 宗正寺에서 바친 종실 명부와 世譜 등을 보관하였다. 待制, 直學士, 直閣 등의 관직을 두었다. '天章'은 '天章閣'을 말하며, 송 眞宗 天禧 5년(1021)에 완공되어, 진종의 御書와 문집을 보관하였다. 송 仁宗 天聖 8년(1030)에 天章閣待制를 두고, 景祐 4년(1037)에 天章閣侍講을, 慶曆 7년(1047)에 天章閣學士와 直學士를, 송 徽宗 政和 6년(1116)에 直天章閣을 두었다.
- 128) 祕閣: 비각은 중국 궁궐 안에 있는 책을 소장해두는 곳이다. 晉, 南朝의 宋, 隨, 唐, 宋대까지 모두 비각을 두고 이곳에 책을 소장했다. 송 태종 太平興國 연간에 昭文館, 集賢院, 史館 등 세 館을 새로 지어 글과 그림을 소장했는데, 이 세 관을 합쳐 崇文院이라 했고, 통칭 閣職이라 했다. 端拱 원년(988) 또 송문원의 中堂에 비각을 두고, 세 관에 있던 善本圖書와 서화 등을 뽑아서 소장했다. 淳化 원년(990) 비각을 증축하여 순화 3년(992)에 완성되자, 송 태종이 '비각'이라는 편액을 직접 썼으며, 直祕閣과 祕閣校理 등의 관직을 두어 비각의 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眞宗 때에 궁중에 화재가 났는데 송문원과 비각에까지 불이 번져 그 안의 장서가 많이 불났다. 그 후 여러 차례 보완해서 인종 때에는 비각의 장서가 이미 15,785권에 이르렀다.
- 129) 學士直學士待制直閣: 송대에 특수하게 '閣學士'라는 관직명을 두었는데, 간략하게 '閣職'이라 칭하고 學士, 直學士, 待制, 直閣의 네 급수로 구분했다. 학사는 正三品, 직학사는 從三品, 대제는 正四品, 직각은 正五品에 해당한다.
- 130) 徽宗: 宋 徽宗 趙佶(1082-1135)을 가리키며 神宗의 열한 번째 아들이자 哲宗의 아우로 송대의 여덟 번째 황제이다. 철종이 병으로 서거했는데, 아들이 없어서 태후가 그를 황제로 추대하고 그 이듬해에 연호를 '建中靖國'으로 바꾸었다. 휘종은 다재다능하고 詩詞와 書畫 등의 여러 방면에 깊은 조예가 깊었으며 新法을 쓰는 등 명군의 기질을 발휘했지만, 정치적으로는 混用無道한 황제로 평가된다. 政和 5년(1115) 北滿洲에서 女眞族이 遼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금나라를 세웠을 때, 童貫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금나라와 동맹하여 요나라를 협공하고, 國初 이래의 罔원이던 燕雲十六州를 수복하려고 꾀했지만, 오히려 宣和 7년(1125) 금나라 군사의 進入을 초래했다. 欽宗에게 讓位하고 스스로 道君皇帝가 되어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재차 침공한 금나라 군사에 의해 국도 開封이 함락되고, 僖宗 및 기타 황족, 후비 등과 함께 금나라 군대에 잡힘으로써 북송의 멸망을 가져왔다. 결국 금군에게 포위당하자 李綱의 말을 받아들여 태자 趙桓에게 선위하고 북송이 망하자 54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의 묘는 紹興 永佑陵(지금의 浙江省 紹興市 柯橋區)에 있다. 이것이 靖康의 變이다. 북만주의 五國城(지금의 黑龍江省 依蘭縣)의 配所에서 병사했다. 글씨를 잘 써 瘦金體로 불렸고, 《千字文卷》이 전한다. 또 그림도 잘 그려 《芙蓉錦鸞》이 전하며, 시사에도 능해 <宣和宮詞> 등을 지었다.

高皇帝¹³⁴), 宣宗章皇帝¹³⁵), 御集哀刻, 尊藏禁中. 窃謂亦宜特設一閣, 以奉雲漢之章¹³⁶), 令詞臣¹³⁷)久待次者充之, 以寓後聖憲章¹³⁸)遺意, 亦聖朝¹³⁹)盛舉也. 至若累朝列聖, 俱留神翰墨¹⁴⁰), 以至世宗之制禮樂更祀典¹⁴¹), 其時高文大冊, 布在人間, 卽下而詩餘小技¹⁴²). 如世傳武宗¹⁴³)諸帝聖製¹⁴⁴), 莫不天縱多能, 卽有散佚, 亦可多方蒐輯¹⁴⁵), 各成一集, 建閣備官, 以待文學近臣寓直¹⁴⁶)其中. 庶乎禮樂明備之朝, 無缺典¹⁴⁷)之恨耳. 按宋最重龍圖, 呼學士爲老龍¹⁴⁸), 直學爲大龍,

131) 播遷: 임금이 도성을 떠나 탄 곳으로 피란하는 것을 말한다.

132) 裔土: 황폐하고 먼 변방을 일컫는다.

133) 敷文閣: 송 휘종 紹興 8년(1138) 남송이 도읍을 臨安으로 정한 후 황궁을 건설해서, 북송 때 황제의 御製와 御書를 보관하던 제도를 회복시켰다. 이를 위해서 휘종의 御書와 서찰 등을 포함한 前代의 《實錄》, 《會要》, 《國史》 및 기타 도서들을 수집했고, 소흥 10년(1140) 휘종의 어제와 문집의 편집이 완성되자, 부문각을 세우고 학사 이하의 관리를 두어 관리하게 했다.

134) 太祖高皇帝: 주 3)과 주 19) 참조.

135) 宣宗章皇帝: 明 제5대 황제 宣宗 朱瞻基(1398-1435)를 가리킨다. 仁宗 朱高熾의 장자로 유년시절 조부 朱棣와 부친의 총애를 받았다. 영락 9년(1411) 조부에 의해 황태손이 되었고 조부 주체를 따라 몽고 토벌을 하였다. 洪熙 원년(1425)에 즉위했는데, 부친 주고치와 성격이 흡사해서 이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지녔고 문인과 예술을 옹호하여 정치와 문학 방면에서 성취를 이루었다. 宣德 10년(1435) 향년 38세로 생을 마쳤으며 景陵에 묻혔다. 묘호는 선종이고 시호는 憲天崇道英明神聖欽文昭武寬仁純孝章皇帝이다.

136) 雲漢之章: 훌륭한 글을 의미하는데, 특히 帝王의 문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137) 詞臣: 한림학사 등과 같이 조정의 문서를 저술하거나, 국사를 편찬하고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는 등의 일을 하는 신하를 말한다.

138) 憲章: 典章 제도를 가리킨다.

139) 聖朝: 백성들이 當代의 왕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140) 翰墨: 文翰과 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쓰거나 글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한 결과물인 문장이나 서화를 가리키기도 한다.

141) 祀典: 제사 儀禮 또는 제사 의례를 기록한 책을 말한다.

142) 詩餘小技: 詩詞 중 詞의 별칭으로 시가발전 과정에서 詩보다 낮은 격식의 문학형식이라는 의미로 칭한 말이다.

143) 武宗: 명나라 제11대 황제 朱厚照(1491-1521)이다. 효종 주우태와 張皇后의 長子로 연호는 正德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다. 정덕 16년(1521) 향년 31세의 나이로 죽었고 묘호는 무종이고 시호는 承天達道英睿睿哲昭德顯功弘文思孝毅皇帝이며 康陵에 묻혔다.

144) 聖製: 御製 즉, 황제가 짓거나 그린 시문, 서화, 악곡을 말한다.

145) 蒐輯: 수집한다는 의미이다.

146) 寓直: 관아에 기숙하며 당직을 선다는 뜻으로 머물며 지킨다는 의미이다.

147) 缺典: 典章이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148) 老龍: 용도각학사의 별칭이다. 송나라 方勺의 《泊宅編》 卷上에서 "옛 제도에 直龍圖閣을 '假龍'이라 하고, 龍圖閣待制를 '小龍'이라 하고, 龍圖閣直學士를 '大龍'이라 하고, 龍圖

待制爲小龍, 直閣爲假龍. 今世唯禮部儀制一司¹⁴⁹⁾, 亦有大儀中儀小儀之稱, 蓋昉于此. 然唐人又呼諫議大夫¹⁵⁰⁾爲大坡, 拾遺¹⁵¹⁾爲小坡, 散騎常待¹⁵²⁾爲大貂, 補闕¹⁵³⁾爲小貂, 又以吏部尙書¹⁵⁴⁾爲大天, 郎中¹⁵⁵⁾爲小天. 尤奇.

< 參考文獻 >

- 張廷玉 等撰,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 邱樹森 主編, 《中國歷代職官辭典》,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1.
- 萬依 主編, 《故宮辭典》, 上海: 文匯出版社, 1996.
- 張搆之·沈起煒·劉德重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陳寶良, 《明代社會生活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龔延明 著, 《中國歷代職官別名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6.
- 李東陽 等 著, 《大明會典》 共五冊, 揚州: 廣陵書社, 2007.
- 趙中南 等 著, 《明代宮廷典製史》, 北京: 紫禁城出版社, 2010.
- 沈德符 撰, 楊萬里 校點, 《萬曆野獲編》 共三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_____ 撰, 《萬曆野獲編》 全三冊, 北京: 中華書局, 2015.
- 賀軍, 《沈德符與〈萬曆野獲編〉》, 內蒙古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李媛, 《明代國家祭祀體系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 李君, 《明代文官制度與明代文學》, 南開大學 中國古代文學博士學位論文, 2013.
- 楊繼光, <《萬曆野獲編》點校獻疑>, 《江漢大學學報》 第30卷 第2期, 2011.

閣學士를 '老龍'이라 했다(舊制, 直龍圖閣謂之假龍, 龍圖閣待制謂之小龍, 龍圖閣直學士謂之大龍, 龍圖閣學士謂之老龍)라고 기록하고 있다.

- 149) 儀制一司: 명·청대의 관서명이다. 禮部에 속한 四司 중 儀制淸吏司의 간칭으로, 홍무 6년(1373)에는 總部, 홍무 22년(1389)에는 儀部였다가 홍무 29년(1396)에 개칭되었다. 예부에서 禮文, 科擧, 學校 관련 사무 등을 관장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 150) 諫議大夫: 관직명으로 황제에게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고문관이다.
- 151) 拾遺: 관직명으로 황제가 모르고 있는 과실을 들어 간하거나 그를 보좌하여 결정을 바로 잡는 일을 맡았다.
- 152) 散騎常待: 관직명으로 황제의 측근에서 모시고 간언하는 일을 맡았다.
- 153) 補闕: 관직명으로 군주의 과실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
- 154) 吏部尙書: 관직명으로 六部 중 吏部의 최고 지위에 있는 장관을 말한다. 명대에는 正二品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天官, 冢宰, 太宰라고 칭한다.
- 155) 郎中: 관직명으로 제왕의 시종관을 통칭하며 員外級에 속한다. 尙書, 侍郎, 丞相 다음으로 높은 관직이다.

胡夢飛, <明代《萬曆野獲編》的寫作特點及其史料價值>, 《徐州工程學院學報》 第27卷 第6期, 2012.

王福梅, <明皇室與北京洪恩靈濟宮>, 《中國道教》 第2期, 2012.

宋貞和, 李承信, 蔡守民, <《萬曆野獲編》 翻譯 및 註釋(1)>, 《中國語文論叢》 第77輯, 2016.

< Abstract >

Wanli Yehuo Bian, written by Shen, Defu (1578-1642),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 recording about the Ming Dynasty. Shen describes various aspects of Ming society, such as politics, institutions, culture and even conspicuous phenomena in the fashion of an essay, *biji*(筆記).

This paper represents a part of translation of *Wanli Yehuo Bian* into Korean with full annotation. The entire volume of *Wanli Yehuo Bian* is constituted of 34 books. *The Chronicles of Emperors*, records of the reign-by-reign of emperors, shows up in the first two books. 109 articles listed in the two books illustrate how the Ming Empire was structured and what had happened around the individual emperors throughout the Ming Dynasty.

This paper selects the first six articles in a row: Declaring Accession to the Throne; Fengxiandian(奉先殿), Palatial Shrine for the Ancestry; Emperor's Temples in the Capital; Enshrine Loyalists with Their Emperor; Xiaozilu(孝子錄), A Guide to the Devoted Sons; Imperial Anthology.

Key words: *Wanli Yehuo Bian*, *The Chronicles of Emperors*, Ming Dynasty, Declaring Accession to the Throne, Fengxiandian(奉先殿), Emperor's Temples in the Capital, Enshrine Loyalists with Their Emperor, Xiaozilu(孝子錄), Imperial Anthology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1. 31.	2017. 02. 27.	2017. 03. 06.	2017. 03. 14.	2017. 03. 31.